

영광군 저출산 해소·젊은층 안정 정책 '올인'

2018년 군정 방향 보니

날로 줄어드는 인구(2016년 5만5618명 →2017년 5만4774명) 대책을 마련하고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층(1만4773명→1만5002명)을 위한 꼼꼼한 복지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공들여 온 '이-모빌리티'(e-mobility)의 연구 개발·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하고 국민권의 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지역 22개 자치단체 중 1위에 오른 청렴도도 유지해야 한다.

영광군이 올해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우선, 국가적 저출산 문제와 젊은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력한다.

인구영향평가제를 실시, 정책 수립 단계부터 특정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 인구 감소를 막고 인구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올해부터 3년간 3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 청년층에게 80%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하반기부터는 만 6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공을 들인다는 게 영광군 방침이다.

지역산업의 활력을 띄우는데도 행정력

인구정책 지원 조례 만들고

공공임대 청년층에 80% 공급

전기차 선도도시 기반 구축

노인 위한 꼼꼼한 복지 총력

을 집중한다. 대마산단 분양률을 8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관련 기업 유치에 힘쓰고 묘량면 신규 농공단지 조성도 박차를 가한다.

영광군은 지난 2000년 분양이 완료된 군서농공단지(11만7000㎡)와 지난 2016년 100%를 마무리한 송림그린테크단지(14만4000㎡) 이후 부족한 소규모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전기차 선도도시로 입지를 다지고 미래 사회 교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는 전기차 선도도시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첫 사업으로, 영광군은 오는 10월 산업부, 전남도 등과 e-모빌리티 엑스포를 열고 관련 산업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기반 확충에도 관심을 쏟는다.

농업용 드론 보급을 확대하고 구제역과 AI에도 안전한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총



김준성 영광군수가 스포티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영광군은 올해 국가적 저출산 문제와 청년 주거 안정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선다. <영광군 제공>

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표적 지역 명품인 굴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참조기와 부세양식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영광문화원과 단오 전수교육관 등을 건립하는 한편, 불갑사 관광지를 확장하고 백수해안 노을 관광지를 대표적 관광단지로 조성해 300만 관광객의 발길이 머무는 도시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고령화 및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대책 확충도 꼼꼼히 챙겨 치매 안심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어르신 일자리 등을 확대,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아울러 매년 되풀이되는 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수용 저수지 신설과 영광 제2정수장 시설개량,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진행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낙월도에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하는 여촌관광 개발사업도 올해 본격 착수, 가보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갈 구상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한해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산적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불갑사 수변공원 전경. 영광군은 올 상반기 불갑저수지 일대를 불갑사와 불갑테마공원 등과 연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영광군 제공>

불갑사 저수지 일대 생태체험 관광지로

불갑사 저수지 일대가 민물고기들을 활용한 생태 체험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불갑저수지를 천년고찰 불갑사와 불갑테마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묶는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올 상반기 착수한다.

영광군은 60억원을 투입, 오는 2020년까지 내수면 어류 생태환경과 산란환경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생태 탐방로를 만들어 여행객들의 발길을 불러들인다는 계획이다.

내수면 어류 생태체험장의 경우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난 꽃잠포, 부들초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퇴치에 뛰어난 쏘가리, 뚝자개, 자라 등 경제성 높은 토종 어종들을 방류,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11억원을 투입, 동행 수상펜션을 건립하고 불갑저수지에서 잡은 어류를 활용한 가공·판매시설을 조성, 붕어·자라 진액, 민물고기, 건어물 판매를 통한 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추진한다.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도 휴게쉼터와 전망대 등을 설치해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농업인 경쟁력 강화 위해

1200여명 대상 실용교육

영광군이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서면을 시작으로 17일까지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식량작물·원예작물 분야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농산물 생산 다짐대회'를 열고 기후 온난화에 대응할 주요작목별 생산비 절감기술 교육을 편성, 운영 하였다.

식량작물 분야에서는 친환경농업, 벼농사, 콩, 옥당동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아열대작물 및 소득작물 분야에서는 고추, 양파,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모시, 아열대작물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기술에 대한 교육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영광 9경' 스탬프투어로 추억 만드세요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대표적 관광지 '9경'을 둘러보는데 도움이 될 '영광 스탬프투어' 앱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영광스탬프 투어'는 영광 9개 추천 관광지를 스마트폰으로 검색, 위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관광안내지도로 활용할 수 있다.

9개 관광지 중 8개 이상을 찾아 스탬프

를 획득하면 선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천을 통해 영광군의 특산물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겨울 주요 관광지는 ▲백수해안도로 ▲철산타워 ▲불교최초도래지 ▲영광 천일염 홍보체험관 등이 꼽힌다. 천일염 홍보관은 소금 생산을 하지 않는 비수기(11월~4월)에만 운영되는 짬짬방

사실로, 군 소유 염전 내부에 마련됐다. 영광군은 영광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짬짬방을 건립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모바일로 스탬프를 찍고 관광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광 스탬프투어' 앱으로 영광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기념관 탐방 승강기 내달 준공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기념관 전경. 관광객 이용에 도움이 될 탐방 승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영광군 제공>

영광 범성포 '백제불교최초도래지'에 탐방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형 승강기가 설치된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연간 14만여명이 찾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기념관에 탐방 승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탐방 승강기는 지난 2016년 12월 16억원을 투입해 착공, 오는 2월 준공될 예정이다.

승강기는 지상 3층 규모(건축면적 159㎡, 연면적 220.7㎡)로, 45.4m 짜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1층에 20인승 엘리베이터, 2층에는

마리안타 존자상과 연결되는 지상 29.85m, 폭2.3m, 길이 33m의 철구조 교량이 설치됐다.

기념관이 들어선 영광 범성포 일대는 인도의 명승 '마리안타 존자'가 백제시대에 들어와 불법을 전하고 불갑사를 개창해 백제 불교가 최초로 시작된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탐방 승강기가 설치되면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의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속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